

# 간편한 '모바일 대출' 심사 강화 해야

### 모바일 대출 3배 급증... 박찬대 의원,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건전성 적극 유지해야"

최근 3년새 모바일을 통한 대출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쉽고 빠른 만큼 과도한 대출이 조장되지 않도록 대출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저축은행·캐피탈사의 모바일

대출 잔액은 2014년 1조857억원에서 지난해 3조6231억원으로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시중은행이 모바일 대출 잔액이 2014년 9754억원에서 지난해 3조1289억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은 722억원에서 4469억원으로 무려 6배 이상 급증했다. 신용등급별 이용자는 4~7등급이 많았다.

캐피탈사는 2014년 381억원에서 2015년 280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472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캐피탈사의 모바일 대출 증가세가 낮은 것은 업무영역 특성상 할부금융이 많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할부금융처럼 캐피탈사가 제조사에 직접 구입자금을 대납하는 경우에는 대출로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박찬대 의원은 "카드론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중신용자들이 1·2금융권의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쉽고 빠른 모바일 대출의 이면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해외 5개국 탄소산업 전문가, 탄소중심도시 전주 방문

해외 탄소산업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국내에서 열리는 '제12회 국제탄소페스티벌(ICF International Carbon Festival)'과 'JEC ASIA 2017 국제복합소재 전시회 개막'을 앞두고 탄소중심도시 전주를 찾는다.

지난 31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따르면, '국제복합소재전시회'(JEC ASIA SEOUL 2017)와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국제탄소페스티벌(ICF)은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에서 기업 등의 연사 43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제복합소재전시회'(JEC ASIA SEOUL 2017)와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국제탄소페스티벌(ICF)은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에서 기업 등의 연사 43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 자연실록 마케팅 공모전 시상식

### 하림, '최고팀' 우승자 탄생... 창의성 등 높은 점수 받아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이 지난 여름 야심 차게 기획했던 '제1회 하림 자연실록 마케팅 공모전-실록홀츠'의 최종 우승자가 가려졌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하림은 지난 30일 익산에 위치한 하림 본사에서 '제1회 하림 자연실록 마케팅 공모전-실록홀츠' 시상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우승 후보자 27명(팀)이 모두 참석해 마지막 발표 및 조리 시연으로 최종 우승자와 부문별 순위를 가리는 형식으로 펼쳐졌다.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된 이번 마케팅 공모전은 하림 자연실록을 즐기는 개인이나 4인 이하의 단체라면 누구나 출품이 가능해 다양한 연령대의 대학생과 주부, 직장인 등이 대거 참여해 개성 넘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 경쟁을 펼쳤다.

심사 결과 ▲전략기획 ▲UCC ▲레시피 등 총 세 부문에 걸쳐 부문별 1등 1명(팀), 2등 2명(팀), 3등 3명(팀) 등 총 18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 중에서 최종 우승

자가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은 하림 이문용 대표이사외의 환영사 및 축사를 시작으로, 공모전 참가자들의 UCC 및 전략기획 부문 발표에 이어 레시피 부문의 조리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 당일 현장 심사 및 배정을 통해 '최우수 실록홀츠' 주인공으로 최고팀팀이 최종 우승자로 결정됐다. 최고팀팀은 자연의 신선한 맛과 영양을 두루 갖춘 닭을 찾기 위한 여정을 다룬 '최고의 닭을 찾아서'를 UCC 부문에 출품해 연관성, 창의성, 완성도, 홍보성 등에서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총 상금 1430만원이 걸린 이번 공모전의 시상식에서는 UCC 영상 부문 1등에게 상금 200만 원, 전략기획과 레시피 부문 1등에게는 각각 상금 100만 원이 주어졌으며, 통합 부문 '최우수 실록홀츠'는 상금 3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또, 수상자 전원에게는 1년에 걸쳐 50만 원 상당의 하림 자연실록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하림 입사 지원 시 가산점이 부가 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익산=장양원 기자

## 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간접지분 포함 동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일감 몰아주기 지분을 개선할 때 간접지분을 포함해야한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규제대상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제기에 이 같이 답했다.

제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망을 피해 다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며 "물류 분야를 보면 삼성은 간접지분을 통해(하고), 현대(글로벌비스)는 어의없게도 29.999976%로 규제를 9주 피해(일감몰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범위가)지나치게 협소

한 것이 문제다. 불법이 아니라면 법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공정위가 다른 방식으로 기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적법한데 무슨 문제냐는 태도는 불식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사회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경영전략을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것을 위해 공정위가 관련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강구하겠다"며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세법적으로도 유효한 접근이 가능하다. 곧 세법개정안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강화될 형태로 있으니 잘 살펴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현대차 전주공장, 봉동읍 자율방범대에 차량 전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31일 봉동읍 자율방범대에 활동용 차량 1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봉동읍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현대자동차그룹이 중점추진 중인 4대 사회공헌사업 중 안전한 이동을 돕는 세이프루브를 구현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이에 문정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과 박성일 완주군수, 소동하 초록우산 전북본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차량 전달식이 진행됐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사회공헌기금 1000만원을 투자하고 완주군과 초록우산 전북본부가 함께 한 차량 지원 사업은 완주지역 청소년 안심귀가 서비스비를 비롯해 야간 자율방범 순찰활동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 전주공장은 회사 소재지인 완주군을 중심으로 전북지역 관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편안한 이동을 돕고자 지난달 행복드림카 중형버스 솔라리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쾌척하는 등 4대 사회공헌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뉴시스

## 국내 기업 매출 증가세 전년대비 2.6% 늘어

### 전반적인 수익성·안정성 지표도 고루 개선

고부러지던 국내 기업 매출 증가세가 지난해 전년대비 2.6% 늘어나면서 상승 반전했다.

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익성과 안정성 지표도 고루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제조업 매출은 0.5% 줄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16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국제정 법인제 신고기업 중 비금융 영리법인 61만 531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6%로 전년도(0.3%)보다 증가세가 확대됐다.

매출액 증가율이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2011년에는 12.2%에 달했으나 2012년 5.1%, 2013년 2.1%, 2014년 1.3%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이어 2015년 0%대로 추락하며 뒷걸음질쳤다. 지난해 기업 성장성이 좋아진 것은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비제조업 기업의 매출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이다. 부동산·임대업의 매출 증가율의 경우 지난해 18.4%

에 달했고, 건설업 매출 증가율도 7.9%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은 매출액 증가율이 -0.5%에 그쳐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국제정 가 하락세가 주춤해지면서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폭이 줄어 전년(-3.0%)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지난 2014년부터 3년째 역성장하고 있다. 조선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이 -14.4%로 나타나 전년(-0.1%)보다 크게 후퇴하면서 전체 제조업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기업의 수익성은 좋아졌다. 전체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5%로 전년도(4.7%)보다 확대됐다. 영업이익률이 5%대로 올라선 것은 2010년(5.3%) 이후 6년 만에 처음이기도 하다.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들이 물건 100원 어치를 팔고, 세금을 빼고 실제로는 5.5원을 벌었다는 얘기다. 지난해 수입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출원가 비중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다. /뉴시스

전라북도 전북농협

# 자연의 건강한 미소

## 에담채

에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